

OECD/DAC 고위관리회의

I. 회의개요

표제 회의가 2011.4.6~7 파리 OECD 본부에서 Brian Atwood DAC의장, DAC회원국, 세계은행, UNDP, IMF 등의 국제기구, 중국, 브라질, 러시아, 인도네시아, 남아공 등 주요 DAC 비회원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.

II. 주요내용

- 부산 HLF-4가 단순히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,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방향 및 비전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함.
- 중국, 인도, 브라질, 남아공 등 신흥공여국의 영향력 증대, 민간 차원의 원조 확대 등 세계원조체계의 변화 속에서 DAC이 적실성(relevance)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여주체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, 이런 맥락에서 DAC의장이 제안한 “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환영 성명(DAC Statement on Welcoming New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-operation)”을 만장일치로 채택
- 기존 원조(ODA)중심의 DAC을 새로운 개발환경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ew DAC은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, 원조와 개발을 아우르는 개발 효과성의 도입,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(PCD)의 추구, 취약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지원 정책 필요성 등 새로운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, 금년 말 부산총회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.
- 최근 정치적 전환기를 겪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큰 바, 각 회원국들이 선거 전문가 파견,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, 최근 변화의 추동 세력인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정치교육 등을 통해 전환과정에서 개롭게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.
- 중국은 부산총회가 개도국들의 세계변영 참여에 기여할 것이라면서, 남남협력 증진, 효과적 원조 이행사례 학습 등을 통해 건설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
- 뉴질랜드, 룩셈부르크, UNDP, 세계은행 등은 원조 효과성 논의를 반영한 포괄적인 개발 논의의

필요성을 강조

- DAC 의장은 UN최빈국 정상회의, OECD 각료이사회(MCM)등을 통해 부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 첨언
- 많은 공여국들이 국내적으로 개발원조의 성과를 보이려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감안, 앞으로 개발원조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회의 참석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됨.
- 개발임팩트 제고를 위해 정책정합성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, 정책정합성 추진을 위해 ODA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
- DAC은 공여국들의 개발원조 공약 제시, 평가 및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“모범 원조공약 관행에 관한 DAC권고”를 채택